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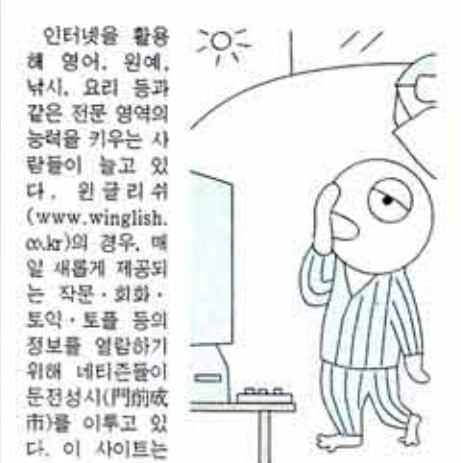


**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본래 한 물건도 있음이여  
되물 붙을 것 또한 없나니  
만일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두 눈물 부러리게 할아릿을 받으리라  
-홍간스님-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인터넷을 활용해 영어, 원예, 낚시, 요리 등과 같은 전문 영역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윈글리쉬(www.winglish.co.kr)의 경우,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작문·회화·토익·토플 등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문경성시(門前成市)를 이루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금 '유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예는, 포항과 공양시가 수립한 세계 첫 사이버 시티(Cyber City) 계획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의 행정 관리는 물론 일반인의 교육과 문화활동 등 모든 도시생활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도록 하는 종합적인 도시정보화 사업이다. 사이버 시티가 구축되면 도시내 각 가정은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인터넷에 접속, 반상회와 동호회, 게시판 등의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전자상거래와 각종 행정업무를 가상공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 아파트' '사이버 상가' '사이버 대학' 등은 인터넷 활용의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의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5월 현재 1500만명이며 이용시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말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4~10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아직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70.9%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용의 시가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인터넷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는 '가상'이 더욱 편리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인터넷의 생활화'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n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 범종교 '국제구호재단' 설립 검토

종교·시민단체 참여...6월25일 '평화대행진' 열기로

지난 3월 온건계열집합운동을 함께 펼쳤던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단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한국종교인권화해회의 등 범종교·시민단체는 국내외 모금을 통해 북한과 전쟁피해 어린이·여성들을 돕는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구호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실린 '한겨레평화대행진' 행사총괄계획안에 따르면, 7월 중 각종 국내 모금행사, 8~10월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순회공연 및 모금행사, 9월 UN 총회 모금행사, 11월 제헌 등 전쟁피해 어린이·여성 지원활동의 일정을 잡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 국제구호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에 참가한 한 종교인은 "갈등의 상징이었던 6.25와 한반도를 이르는 평화의 중심으로 바뀌어나가 한다"며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일 분단 국에서 세계평화 메시지를 도약하기 위해 국제구호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교·시민단체들은 6.25전쟁 50주년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겨레평화대행진'과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대행진'을 열 계획이다.

한겨레대행진은 노래공연과 통일 열기를 열거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지 낭독, 화해와 평화를 위

**봉암사 인근 광산 개발로 수행권 침해**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회양산 봉암사(주지 효경, 문경시 가은읍) 인근에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가 추진되고 있어 수행환경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봉암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3200여평에 임모씨 등 2명이 수경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95년부터 봉암사 인근에서 토석을 채취해온 원경광업소(대표 한금석)가 10월 말 끝나는 사업기간 연장신청서를 9월 산림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경광산이 개발될 경우 수행환경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이요, 일대 문화유적의 파괴도 예상된다. 수경광산 예정지 인근에는 고은 최치원이 말년에 친필을 남긴 선유구곡, 견희와 왕건이 남긴 산성, 항일의병장이 운강선생의 기념비등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특히 광산개발 예정지 건너편에 위치한 오봉정 지구는 봉암사에서 무문관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경광업소의 토석채취로 생활 및 수행환경 피해를 입은 봉암사와 인근 주민들은 '안장리 광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에 대한 반대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해 8월 광산개발 예정지가 조립지역인데다 토석채취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이라며 일체의 국유림 대부신청을 반려했으며, 일시는 이에 반발, 대구지방법원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경광산개발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효경스님은 "이곳의 수행 및 자연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후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암사는 선문교단의 하나인 회양산파의 총괄로 지난 47년 성립 한국 청담 해암스님이 정화결사를 주도한 유서깊은 도량으로, 60~100여명의 스님이 년중무휴로 참선정진에 임하고 있다. 문경=이은호 기자

## "자비행 실천하는 불자되자"

11일 전국 1만여 사암 봉축법요식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이 11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 봉암사 관문사 탐구사 등 전국 1만여 사암에서 봉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28분의 타종으로 시작된 조계사 봉축법요식은 마음의 때를 씻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관불(灌佛)과 마정수기, 헌화, 헌다 등 전통종교의식에 따라 진행됐다.

조계종 총장 해암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은 일심동체의 큰 나라 돌아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죽기로 결심해 하루빨리 도를 자각하는 일이 부처님 오신날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부처님의 연기사상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독한 봉축사에서 "불교가 있으므로 한 민족이 존립할 수 있었다"고



**"세상을 맑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11일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이 마음의 때를 씻어 세상을 맑히겠다고 서원하며 관불(灌佛)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관정(灌頂)이라고도 하는 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아홉 마리의 용이 향수를 뿌려 목욕시켰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전통의식으로, 부처님 오신날이면 모든 사찰에서 봉행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 "자비와 사랑은 인류 공동의 선"

**교회협 초파일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동환 목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일체중생에 불심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처럼 새 천년, 새로운 세기의 첫 번째 부처님 오신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넘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8일 발표했다.

김동환 총무는 "부귀영화와 벗어던지고 중생의 고통에 참여해 해탈의 경지에서 부처가 된

석가모니의 삶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던 오늘의 모든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이 지구화와 정보화의 흐름으로 인해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적인 관심이 되고 공동의 선을 이뤄가는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개신교회에서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우 기자

**모범수형자 1441명**

**부처님 오신날 가색방**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의 40개 구치소·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 1441명을 가색방했다.

이번 가색방 대상에는 살인죄로 19년을 복역한 최재만(48)씨 등 무기수 3명과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 25명이 포함됐다. 또 전기용접 등 가능자격 취득자 136명, 고교졸업자격 등 검정고시 합격자 31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명 등이 가색방 됐다. 정성운 기자

**다음 주 신문 쉽니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주요기능 및 서비스**

- 휴대전화 기능
- 무선 인터넷 검색
- E-mail 송수신
- 주소록 기능
- 스케줄관리 기능
- MP3 플레이어 기능
- 실시간 불교뉴스
- 공연/전시회 소식
- 오늘의 법문
- 찬불가 듣고 배우기
- 전통사찰 소개
- 오늘의 생활지혜
- 쇼핑/경매기능

**프리즘정보통신(주)**

- 휴대 무선단말기 SPEC**  
화면 해상도 640x480 VGA칼라  
크기: 12.6(길이) x 10.2(폭) x 1.9(높이)cm  
windows CE 탑재  
핸드폰 기능(CDMA) 통신기능  
무선데이터 전송속도 56K이상
-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불교실시간 뉴스, 공연/전시회 오늘의 법문 찬불가 듣고 배우기, 전통사찰소개, 오늘의 생활지혜등이 7월중 무선불교정보로 서비스 됩니다.  
무선 인터넷 검색과 E-mail 송수신, PDA기능등과 함께 제공될 무선불교정보서비스 단말기는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MP3,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검색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단말기만 있으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